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정부에 공식 건의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5월 단체 등이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6차 위원장단 회의를 열었다.

윤정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 시교육감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5월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장관과의 면담에서 건의할 원형복원 내용이 공개됐다. 윤정현 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대책위 상임위원장, 김영정 대책위 집행위원장, 5·18단체 대표들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면담을 갖는다.

면담에서 대책위는 도청 본관과 별관 민원실(회의실),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사무관 등 6개 건축물의 내외부 원형을 복원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간의 항쟁의 모습을 재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건물 외부의 경우 1980년 5월 시민군의 활동을 토대로 역사적인 공간을 복원한다.

현재 단절돼 있는 옛 도청 본관과 별관 3~4층은 '오월의 문'을 만들어 연결하고, 본관과 민원실을 각각 있는 연결 통로도 복원하기로 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구조변경 과정에서 철거된 이들 연결통로는 시민군이 보초를 섰던 동선, 시민군 최후의 퇴로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자 센터는 1980년 당시 시민군 시신을 수습한 역사적 장소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할 예정이다.

옛 전남경찰청의 본관 경관을 가리는 LED 펜스는 철거하고, 사무관 입구와 민주광장을 평지화하기로 했다.

복원 이후 채워질 콘텐츠는 큰 그림만 그렸다.

5·18 당시 시민군의 주요 활동 거점이었던 방송실, 상황실, 대변인실, 회의공간, 식사장소 무기고 희생자 수습장소를 스토리텔링으로 재현한다는 방침이다.

5월 21일 시민군의 도청 탈환, 27일 최후 항쟁 등 5·18의 의미 있는 장소와 과정은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육원의 콘텐츠 설치를 위해 이미 100% 훼손된 경찰청 본관과 민원실을 원형 복원하면서 불가피한 콘텐츠 이전 문제는 문화전당의 문화장

광주시·전남도·시민사회단체 등 내일 서울서 도종환 문체부장관 면담

조원 복합관, 전일빌딩 활용과 사무관 뒤에 건물을 신축하는 3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다.

대책위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이 지금처럼 훼손된 것은 정부와 우리 광주 모두의 책임'이라며 '5·18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

자체다. 옛 전남도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영원히 보존되고 기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 도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광주가 그동안 준비해 온 옛 전남도청 복원안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문체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복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무인헬기 활용한벼 병해충 공동방제 24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기동들녘에서 무인헬기를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하고 있다.

향토음식 거리서 외국산 소고기 한우로 속여 판 업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했던 업체 등 16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향토음식 특화거리에서 떡갈비와 곰탕, 불고기 등 소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단속을 통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했던 업체 9곳을 적발해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국내산 한우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외국산 소고기는 4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6억10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농관원은 또 외국산 소고기

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업체, 거래 내역서(영수증)를 작성하지 않은 2개 업체는 1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내산 육우를 한우 고기로 음식점에 납품한 판매업체 1곳, 중국산 배추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체 2곳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김정환 기자

불법 조업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오작동'으로 탈미

여수해양경비안전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신고한 범종에 출항한 4급 어선이 선내 설치된 V-PASS(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잘못 작동되면서 이를 건

급 구조 신호로 알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24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남 오후 8시 36분께 여수시 모도동 운동포구 앞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복 1벌과 공기통, 납

벨트 등 어구를 배에 신고 출항한 여수선적 어획물 운반선 P호(선장 조 모(51) 씨·승선원 3명)를 10여 분간 추적 끝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이란서 99명 독성 밀주 마시고 중독 5명 사망

음주를 금지하는 이란에서 독성 밀주를 마신 99명 중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이란 ISNA통신은 구조당국을 인용해 케르만주 사르잔 시에서 주민들이 메탄올이 든 독수를 마시고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독주에 중독된 99명 가운데 35명은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상태가 호전된 사람은 이미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79년 이슬람 혁명 뒤 이란에서는 알코올을 팔거나 마시는 것이 모두 금지됐다. 특히 밀주 주류는 집중 단속 대상이 돼 왔다.

순수 알코올을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파는 것조차 개혁파인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이 집권한 1997년에 와서야 허용됐을 정도다.

반면 사람들은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거래가 지속되면서 음주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프간 카불서 자폭테러로 최소 24명 사망

아프가니스탄의 유명 정치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수도 카불 서부에서 24일 아침(현지시간) 자살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했다고 한 정부 관리가 밝혔다.

나집 다니시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범인이 소형 버스를 향해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충돌시켰다면서도 소형 버스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목표였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아프간에서는 버스에 탄 공무원들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여러 번 발생했다. 그러나 다니시 대변인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공무원들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니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희생자들이 모두 민간인이라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 카불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은 탈레반이나 이슬람국가(IS)에 충성하는 단체들이 저질렀다.

캐나다 토론토 파티장서 총기난사 2명 사망

캐나다 토론토 생일파티장에서 23일(현지시간) 하객을 상대로 하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CCTV가 보도했다.

방춤에 따르면 이날 아침 토론토 동쪽 끝에서 200명의 축하객이 모인 가운데 생일파티가 열리던 중 총격이 일어났다.

경찰은 누군가가 인쟁을 벌이는 와중에 총을 발사하면서 남자 2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총에 맞은 사상자들이 미리 계획된 범행 목표였는지, 용의자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알기 위해 하객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 텍사스 인신매매 희생자 17명 생명 위독

9명이 숨진 미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대형 트레일러 인신매매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부상자 가운데 17명은 심한 탈수와 고열 증세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익명을 요구한 한 미 관리가 23일 밝혔다.

앞서 샌안토니오 경찰은 샌안토니오 월마트 주차장의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8명이 숨지고 최소 30명이 부상한 채 들어 있는 것을 발견,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고 있다.

이 관리의 부상자 중 17명은 생명이 위독하고 나머지 13명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다고 전했다. 병원에서 치료 중 1명이 추가로 숨져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모두 9명이다.

이 관리의 희생자들이 어느 곳에서 미국 국경을 넘었는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밀입국자들은 소규모로 미 국경을 넘어와 중간 집결지에 모인 뒤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미국 내 다른 곳으로 이송된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소 9명이 숨진 샌안토니오 사건은 인신매매조직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희생자들은 이상열과를 겪고 있는 텍사스에서 에어컨도 설치되지 않은 트레일러 안에 집적처럼 실려 있다 쓰러졌다.

큰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